

2017년 5월 27일, 성산을 신양리 정만순 씨 댁, 송정희 조사.  
정만순(여, 1925년생, 성산을 신양리)

• 줄거리: 배를 타고 중국에 간 사람이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 착각한 우스갯소리이다.

**[제보자]** 우리 아버지가 굳는 말은 옛날에 배를 타고 중국을 갔는데,

“삼강을 아느냐?”

경 허난, 그 말은 삼강오륜은 몰르고, 손가락 다섯 개 7리치면서 오륜,

“떡 다섯 개 먹엄 가노라.”

허나네,

“아, 저 사람은 오륜??장 알았구나.”

우리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 들었어요. 옛날에 어둡은 시절에, 글은 모르는 사람이 중국더러 뱃사허러 태왕 갔인다, 그 풍선으로 땡길 때,

“너 삼강을 아느냐?”

태왕 가는 사람이 물으니깐, 대답은 못허고 무신 말로 못 듣고 뭘 먹엄 값이니 굳는 걸로 그 사람은 생각을 헤가지고, 영 다섯 손가락을 폐완,

“아, 오륜.”

떡 다섯 개 먹엄 가노렌 허는 말은 그 사람 생각엔 오륜??지 안다 해서 허난 옛 말 굳는 거 들어났어요.

• 핵심어 : 중국, 삼강오륜, 떡, 배, 뱃사람, 뱃사람